

문장 내 위치에 따른 스페인어 담화표지 'entonces'의 기능*

손 지 은
서울대학교

손지은(2019), 「문장 내 위치에 따른 스페인어 담화표지 'entonces'의 기능」,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0(3), 287-313.

초 록 전통적으로 담화표지는 '허사(expletives)' 혹은 'pause-fillers'라고 지칭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문장 내에서 통사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스페인어 학습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담화표지로는 문장 앞에 출현하여 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pues', 'bueno', 'entonces' 등으로, 대화의 주제를 바꾸거나, 앞 담화와의 연결어로 사용된다. 본 연구는 스페인어 담화표지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 중에서 Martín Zorraquino & Portolés(1999), Romera(2001), 심영식(2012) 등을 바탕으로 담화표지의 문장 내 위치와 의미적 기능을 고찰해 보았다. 또한 스페인어 담화표지와 한국어의 대응 요소 간에 비교 대조 분석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Ⅱ장에서는 담화표지와 관련된 용어와 그 정의에 대해서 다루었으며, Ⅲ장에서는 기능에 따른 스페인어 담화표지의 분류에 대해 다루었다. Ⅳ장에서는 담화표지의 문장 내 출현 위치의 다양성을 다루고, Ⅴ장에서는 스페인어 담화표지 중 문어와 구어, 격식체와 비격식체에서 모두 빈번하게 출현하는 'entonces'의 문장 내 위치에 따른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문두와 문중에 나타나는 'entonces'는 대부분의 경우에 의미적 차원에서의 결과(semantic consequence)를 표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문미에서의 'entonces'는 문장을 종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점을 고려하여 결론에서 담화표지의 기능에 '문장종결표지(sentence final marker)'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담화표지, 담화표지 기능, 담화표지의 위치, 스페인어 entonces, 문장종결표지

* 위 논문은 2015년 7월 벨기에에서 열린 14th International Pragmatics Conference에서 "Prosody and discourse functions at the left and right periphery in Los Angeles Vernacular Spanish: An analysis of 'entonces'"의 제목으로 구두 발표한 내용의 일부를 심화 발전시킨 것이다.

I. 들어가는 말

독립적인 두 문장 사이를 연결하거나, 한 문장 내에서 구와 구 사이를 연결하는 담화표지(marcadores discursivos, marcadores del discurso)는 Schifffrin(1987) 이후로 다양한 언어권의 언어학계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특히, 문장 이상의 단위와 일상생활에 쓰이는 실제 언어 사용에 대한 언어 학계의 관심이 커지고, 문어 및 구어 코퍼스가 구축되면서 담화 연구 및 화용 연구가 전체 언어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다. 담화표지는 그 중에서도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많은 관심을 받는 연구주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전영옥 2017, 127).

국내에서 발표된 스페인어 담화표지와 관련된 연구로는 스페인어 원어수업에서 사용된 담화표지를 분석한 심영식(2009)과 스페인어 교재에 사용된 담화표지를 분석한 심영식(2012), 응결 요소 'pues'의 기능을 분석한 조혜진(2018) 등이 있다. 유은정(2013)에서는 제2외국어로서 스페인어를 교육함에 있어, 문장 차원에서의 문법 교육이 아닌 '담화'를 통하여 각 문법 항목이 사용된 상황과 연계하여 교육할 것을 제안하였다.

스페인어를 비롯하여, 영어, 한국어 등의 문어 및 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 많은 연구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살펴볼 선행연구는 Martín Zorraquino & Portolés(1999), Romera(2001), Martín Butragueño(2003), 심영식(2012), 조혜진(2018) 등이다. 이들 자료는 스페인어 담화표지를 주로 의미, 기능, 억양, 교육적 측면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조혜진(2018)에서는, 스페인 소설 『Historias del Kronen』을 코퍼스로 선택하여 'pues'의 의미·화용적 기능을 분석하였으며, 이 소설의 특성상 나타나는 일상적인 비형식적 구어 담화에서의 'pues'의 쓰임을 보여주었다. 위 소설에 등장하는 'pues'를 분석한 결과, 'pues'가 주로 문두에 위치하였고, 문장 중간에 나타난 사례는 한차례 있었다고 하였다(조혜진 2018, 190). 하지만 다른 많은 연구는 'pues'를 비롯하여 자주 사용되는 담화표지의 문장 내에서의 위치가 자유롭다고 주장한다. 문장 내 담화표지의 출현 위치에 대해서는 IV장에서 논의

하기로 하겠다.

한국어로 ‘자’, ‘이제’, ‘그럼’ 정도의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 ‘pues’의 경우 영어의 ‘so’와 유사한 의미와 기능을 지니고 있기에, 스펡글리쉬(Spanglish)의 담화표지로도 자주 등장한다. 스페인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하는 이중언어화자는 영어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다가도 담화표지 ‘pues’를 사용하며 코드스위칭의 사례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와 반대로 스페인어로 대화를 이끄는 중에 영어 ‘so’를 사용하기도 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¹⁾

일반적으로 스페인어 모국어 화자들 사이에서 ‘pues’는 매우 빈번히 담화 속에 등장하기에, 비격식적인 구어 담화 상황에서 모음이 축약되어 ‘pos’로 줄곧 발음되기도 하며²⁾, 몇몇 학자들은 모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p’s] 혹은 [ps]로 표기하기도 한다(Fuentes Rodriguez et al. 2016, 80; Dabkowski 2018, 57 등). ‘entonces’ 또한 모음 축약 현상이 나타나서 [entons], [ent’ns], [tons(:)] 등으로 표기되기도 한다(Dabkowski 2018, 57 등).

한국인 스페인어 학습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담화표지로는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면서 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사용되는 ‘pues’, ‘bueno’, ‘entonces’ 등이 있으며, 이들 표현은 한국어 담화표지 중에 화제를 전환하는 기

1) 참고로 아래의 예시는 Showstack(2015, 344, 354)에서 가지고 온 대화이다. 대화에 등장하는 Layla는 고등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멕시코 북부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으로, 자료 수집 당시 히스패닉 문학에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Layla가 학생들에게 코드스위칭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상황에서 Layla가 학생 Sarai의 ‘so’의 사용을 교정해 주는 부분이다. Gabriel 또한 의견을 나누는 학생 중 한 명이다(Example 7).

1 Sarai: Bueno, a mí personalmente no me gusta estar- hacer el code-switching.

2 porque se me hace así como que cuando estás hablando

3 se enseña que no sabe inglés y español bien,

4 Layla: um hum.

5 Sarai: so no me gusta hacerlo pero sí lo hago.

6 Layla: So también? Existe ‘so’ en español?

7 Sarai: No.

8 Layla: Es una muletilla. En español se dice ‘pue:::s,’ ‘entonces, pues.’ Muy bien,

9 Gabriel: Pos (Suggesting alternative pronunciation of ‘pues’)

2) ‘pos’는 멕시코 일부 지역과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는 멕시코 출신의 화자들의 발음에서 관찰되기도 한다(Showstack 2015, 354).

능도 지닌 ‘자’, ‘이제’, ‘그럼’, ‘그러면’, ‘그래서’와 유사한 의미와 기능을 지니고 있다. 스페인어 초급 수준의 교재에서도 담화표지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특히 실제 사용에 가깝게 구성된 듣기 내용이나 대화문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예시로 스페인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급스페인어 1> 서울대학교 수업 교재에서 사용된 다음의 경우를 꼽을 수 있다. (1)의 예시는 3과 “¿De dónde eres?(너는 어디 출신이니?)”를 시작하는 대화문이고, (2)의 예시는 7과 “¡Feliz cumpleaños!(생일 축하해!)”를 시작하는 대화문이다.

(1) Carla: ¡Hola! Buenos días, Sofía.

Sofía: ¡Buenos días!

Carla: **Mira**, te presento a mi mejor amigo.

Quique: ¡Hola!

(신자영 외 2013, 46)

(2) Juan: ¡Estupendo! ¿Qué regalo piensas comprar?

Sofía: Yo un perfume o una billetera. ¿Y tú?

Juan: No sé todavía. Pero mañana jueves voy al centro comercial para comprar un regalo.

Sofía: **Bueno, entonces** nos vemos pasado mañana en el club. De allí, vamos todos juntos a casa de Carla.

Juan: Sí, sí. Gracias.

(신자영 외 2013, 114)

초급 수준의 학생들을 위한 교재이지만,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자연스러운 대화문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기에 담화표지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담화표지 중에 상위 출현 빈도수를 보이는 것에는 ‘pues’, ‘entonces’, ‘bueno’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단연 ‘pues’가 도입어와 결과접속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Romera 2001; Butragueño 2003). 본 연구에서는 조혜진(2018)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선행연구에서 이미 다루었고, 비격식체 구어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pues’와 ‘bueno’를 제외하고 문어와 구어 그리고 격식체와 비격식체에서 모두 등장하는 ‘entonces’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출현 위치의 다양성을 다루고 그에 따른 기능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장에서는 담화표지와 관련된 용어와 그 정의에 대해서 다루며, Ⅲ 장에서는 기능에 따른 스페인어 담화표지의 분류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담화표지 사용에 있어서 스페인어의 지역별 다양성(variedad)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고찰해볼 것이다. 이후, Ⅳ 장에서는 담화표지의 출현 위치의 다양성을 다루고, Ⅴ 장에서는 그전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entonces’의 문장 내 위치에 따른 기능과 역할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Ⅱ. 담화표지를 지칭하는 용어와 정의의 다양성

스페인어의 담화표지는 ‘muletilla’로도 알려져 있는데, RAE(Real Academia Española) 사전에서는 이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³⁾. 본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담화표지’는 문장 내에서 의미적·화용적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화자의 반복적인 습관을 가리키는 muletilla와는 차이가 있으며, 전통적으로 사용하였던 용어 중에 ‘expletives(허사)’, ‘pause-fillers(휴지 채움말, 공백 메우기⁴⁾)’와도 차이를 보인다. 그 외에 담화표지를 가리키는 다양한 용어에 한국어를 대응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discourse markers: 담화표지
discourse operators: 담화 작용어
discourse particles: 담화 불변화사⁵⁾
cue phrases: 단서 어구
connective phrases: 연결 어구
pragmatic markers: 화용표지
pragmatic particles: 화용 불변화사
discourse connectives: 담화 연결사

Romera(2001, 12-13)

3) RAE(Real Academia Española, 2019)에서의 정의: Voz o frase que se repite mucho por hábito.

4) 이성하(2014)에서는 한국어의 의사의문구문을 분류하면서, ‘뭐랄까’, ‘그 뭐냐’, ‘뭐라더라’ 등과 같은 표현들을 ‘pause-filler’로 구분하고, 이를 한국어로 ‘공백 메우기’라는 용어로 지칭하였다.

5) 김해연 외(2016)에서 사용된 용어인 ‘불변화사’를 차용하였다.

전영옥(2017, 128-132)에서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http://www.riss.kr>)에 관련 용어 중 ‘담화표지’, ‘화용표지’, ‘간투사’ 등의 검색어를 넣어, 국내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국내의 담화표지 연구현황을 분석하였다. 논문 제목에 나타난 용어를 기준으로 ‘담화표지’가 81.0%의 비율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였고, 담화표지어(7.4%), 간투사(2.6%), 화용표지(2.2%), 결속표지(1.3%)가 뒤따랐다. 그 외에도 담화대용표지, 텍스트구조표지, 구조화표지, 결속대용표지, 상투어 등의 용어가 1-2회 정도 논문의 제목에 각각 나타났다고 하였다(전영옥 2017, 132, <표4> 참고). 위 논문을 참고하여 각 용어의 세부적인 특징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 화용표지: 담화상에서의 쓰임보다 화용적 의미를 획득하는 것에 초점을 둠
- 담화표지: 화용적 의미의 획득보다는 담화상에서의 쓰임으로 인해 의미를 새로이 획득한다는 점을 강조
- 담화표지어: 어휘에 국한하는 것을 인식하기 쉽다는 한계가 있음
- 담화대용표지: 접속부사류가 가지는 담화 결속 기제로서의 특징을 강조
- 담화불변화사: 담화표지가 형태적으로 고정성이 높다는 특징을 강조
- 간투사: 담화표지가 다른 문장 성분과 독립적인 성분임을 강조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담화표지는 문장 내에서 독립적인 존재이며, 담화와 담화 사이를 연결하는 기능을 지녔고, 고정적인 형태를 가졌다고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담화표지는 고정된 언어 단위로서 담화에서의 내용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문장 내에서 통사적인 기능은 없다. 이와 더불어, 대화를 시작하는 역할도 하고, 대화의 주제를 바꾸기도 하며 청자, 화자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Portolés 1998, 25; 심영식 2009, 266; 심영식 2012, 166).

Martín Zorraquino & Portolés(1999, 4057)에서 정의한 것처럼⁶⁾, 담화표지는 문장 내에서 통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요소(elementos marginales)로 여겨진 것이 사실이다. 또한, 위 논문에서는 문장

6) Cf. Martín Zorraquino & Portolés (1999, 4057): Los ‘marcadores del discurso’ son unidades lingüísticas invariables, no ejercen una función sintáctica en el marco de la predicción oracional -son, pues, elementos marginales- y poseen un cometido coincidente

내 담화표지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면이 주로 문장 앞에 위치하는 접속사(conjunción)와의 차이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자에 따라서 ‘pero’, ‘y’, ‘aunque’와 같은 ‘접속사’를 담화표지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담화표지 관련 선행연구에서 담화표지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그 개념이 가리키는 어휘의 범위도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전영옥(2017, 133-135)에서 정리한 <표 5-담화표지로 연구된 언어형식>와 <표 7-담화표지의 유형>을 재구성하여 <표 1>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 담화표지를 구분하는 품사가 매우 다양함을 보여주고 한국어 담화표지의 실제 예시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후, 이 표를 참고하여 한국어 담화표지의 기능과 문장 내 위치를 스페인어와 비교하며 논의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자주 사용되는 예시는 굵은 글씨와 밑줄로 표시하였다.

<표 1> 한국어 담화표지로 연구된 표현의 범위 구분, 전영옥(2017, 133-137) 참고

구 분	해당 담화표지 예시
감탄사	<u>글쎄</u> , 아, 어, <u>예/네</u> , 오, <u>자</u> , <u>저기</u> (요) <u>가만</u> , 그럼, <u>뭘</u> , <u>아니</u> , <u>어디</u> , <u>왜</u> , 참, 이, 그, 저, 등
감탄사/부사	<u>가만</u> , 그래, 그러게, <u>아니</u> , <u>왜</u> , 참
감탄사/대명사	거시기, <u>뭘</u> , <u>어디</u>
부사(접속부사, 접속어)	그러-계열, <u>그래서</u> , <u>그러니까</u> , 그런데, <u>그리고</u> , 그러나, 그렇지만,
부사(그 외)	<u>그냥</u> , 그만/고마, 그저, 다, <u>막</u> , <u>쫌</u> 아무튼/어쨌든/하여튼, <u>이제</u> /인자, 정말/진짜
대명사/관형사	이, 그, 저 (지시어)
관형사	<u>무슨</u> , <u>웬</u> , 등
명사구	<u>뭘</u> 등
용언(구)	됐어, 말이다/ <u>말이야</u> , 물론이다, 당연히다, 뭐냐/뭐랄까/뭐야, 있지/ <u>있잖아</u> , <u>그렇잖아요</u> 등
(보)조사	-는/-가, 로, <u>요</u>
구절	<u>그래 가지고</u> , 다름 아니라, 그건 그렇고, 아니 근데, -어 가지고

en el discurso: el de guiar, de acuerdo con sus distintas propiedades morfosintácticas, semánticas y pragmáticas, las inferencias que se realizan en la comunicación.

이제까지 담화표지를 지칭하는 용어의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품사에 따라 구분된 한국어 담화표지의 예시를 <표 1>을 통해 정리해 보았다. 이어서 Ⅲ 장에서는 기능에 따른 스페인어 담화표지의 분류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Ⅲ. 기능에 따른 스페인어 담화표지의 분류

이 장에서는 이후 스페인어 담화표지의 기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하여, Martín Zorraquino & Portolés(1999, 4081-4082)에서 분류한 담화표지의 기능과 Romera(2001)에서의 담화표지 예시를 종합하여 <표 2>로 정리하였다. 각각의 기능에 해당하는 번역은 심영식(2012, 167)에서 사용한 용어를 참고하였으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스페인어와 한국어 담화표지 중 그 사용 빈도수가 많은 경우에 굵은 글씨와 밑줄로 표시하였다. 해당 빈도수는 Romera(2001)의 분석 및 본 연구의 <표 1>을 참고하였고, <표 1>에 언급된 한국어 담화표지를 각 분류에 맞춰 <표 2>에서 대응시켜 보았다. 이때 한국어 담화표지 표현은 스페인어 담화표지의 일대일 번역이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한국어 담화표지의 기본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Romera(2001)는 담화표지를 ‘담화 기능적 단위(Discourse Functional Units)’라고 지칭하였고, 스페인어 코퍼스 CREA(Corpus de Referencia del Español Actual)를 통하여 2,292개 예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자료에 등장한 108개의 담화표지 중에 ‘pero’, ‘y’, ‘porque’, ‘pues’, ‘es que’, ‘o sea’, ‘entonces’, ‘bueno’, ‘si’의 9개가 전체 용례의 76.7%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99개 담화표지들은 23.3%에 해당하는 예시에 등장하였다(Romera 2001, 151-154). 이를 통해 자주 사용되는 담화표지는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접속사로 분류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것을 제외하면 단연 ‘pues’, ‘entonces’, ‘bueno’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 2>의 분류 내용 중에서 도입어의 예시에 있는 ‘en primer lugar’와 같은 표현에서 ‘lugar’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en primer

〈표 2〉 스페인어 담화표지의 기능에 따른 분류

대 분류	소 분류	스페인어 예시	한국어 예시
Estructuradores de la información (정보구성 표지어)	Comentadores (도입어)	pues, pues bien, así las cosas, etc. (bien, bueno, dicho esto)	어, 참, <u>뵘</u> , <u>그럼</u> , 저기(요), 있잖아(요), <u>이제</u>
	Ordenadores (정보 병렬어)	en primer lugar/en segundo lugar/; por una parte/por otra parte; de un lado/de otro lado, etc. (primero, en primer término)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한편
	Digresores (탈제어)	por cierto, a todo esto, a propósito, etc.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Conectores (접속어)	Conectores aditivos (부가접속어)	además, encima, aparte, incluso, etc.	그러면, 그리고, 그렇다고, 그래도,
	Conectores consecutivos (결과접속어)	por tanto, por consiguiente, por ende, en consecuencia, de ahí, <u>entonces</u> , <u>pues</u> , así, así pues, etc. (de resultas)	<u>그냥</u> ,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래/이래 가지고,
	Conectores contra- argumentativos (역접속어)	en cambio, por el contrario, por contra, antes bien, sin embargo, no obstante, con todo, etc. (al contrario, ahora bien, ahora, eso sí)	그런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반면에, 아무튼
Reformuladores (환언 표지어)	Reformuladores explicativos (부연설명 표지어)	<u>o sea</u> , es decir, esto es, a saber, etc.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Reformuladores de rectificación (정정표지어)	mejor dicho, mejor aún, más bien, etc. (digo, bueno)	말하자면,
Reformuladores (환언 표지어)	Reformuladores de distanciamiento (절연표지어)	en cualquier caso, en todo caso, de todos modos, etc. (de cualquier manera)	어쨌든
	Reformuladores recapitulativos (결론표지어)	en suma, en conclusión, en definitiva, en fin, al fin y al cabo, etc. (bueno, total, después de todo, en resumidas cuentas)	그럼, 아무튼, 여하튼, 어쨌든, 좌우간

〈표 2〉 계속

대분류	소분류	스페인어 예시	한국어 예시
Operadores argumentativos (논증강화 작용어)	Operadores de refuerzo argumentativo (논증강화 작용어)	en realidad, en el fondo, de hecho, etc. (claro, desde luego, en efecto, la verdad, en rigor)	사실은, 실상은, 진짜, 정말
	Operadores de concreción (예시작용어)	por ejemplo, en particular, etc. (en concreto, en especial)	예를 들어
Marcadores conversacionales (대화표지어)	De modalidad epistémica (인식 양태 표지어) ⁷⁾	claro, desde luego, por lo visto, etc.	틀림없이
	De modalidad deóntica (의무 양태 표지어)	<u>bueno</u> , bien, vale, etc.	
	Enfocadores de la alteridad (이타 강조 표지어)	<u>hombre</u> , mira, oye, etc.	이봐(요), 저기(요), 호칭어(선생님, 아주머님 등)
	Metadiscursivos conversacionales (메타담화 대화 표지어)	<u>bueno</u> , eh, este, etc.	어, 저기, 이거

término'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결과접속어에 속하는 'por ende'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어체에 등장하고, 부연설명 표지어와 정정 표지어에 해당하는 표현들은 지역이나 청자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어조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부연설명 표지어로 사용된 'o sea'와 이타 강조 표지어에 있는 'hombre'의 경우에도 주로 유럽 스페인어에서 사용된다. 의무 양태 표지어에 스페인에서 주로 사용되는 'vale'가 포함되어 있는데, 스페인어의 다양성을 고려할 경우, 멕시코에서 주로 사용하는 'sale'도 포함될 수 있으며, 아르헨티나에서 사용하는 'dale' 또한 마찬가지 경우라 할 수 있다.

7) 심영식(2012, 169-170)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담화표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식 양태, 의무 양태, 이타 강조, 메타담화 표지어라고 번역하였다. 양태(modality)는 흔히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정의된다(이기갑 2006: 67).

IV. 문장 내 담화표지의 출현 위치의 다양성

앞서 언급한 Martín Zorraquino & Portolés(1999, 4057)에서는 담화표지의 특징으로 문장 내에서의 출현 위치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꼽았는데, 그 예시로 역접의 의미를 지닌 ‘no obstante’가 나타난 경우를 제시하였다.

- (3) Juan estaba cansado. **No obstante**, continuó su camino.
- (4) Juan estaba cansado. Continuó, **no obstante**, su camino.
- (5) Juan estaba cansado. Continuó su camino, **no obstante**.

(Martín Zorraquino & Portolés 1999, 4063)

위 예문들은 담화표지 ‘no obstante’가 문장 내의 다양한 위치(문두, 문중, 문미)에서 모두 출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담화표지가 문장 내에서 아무곳에서나 위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 예문을 통해 담화표지가 문장 내 구성성분 중 핵(nucleo)과 핵을 바로 꾸며주는 요소(adyacentes especificativos) 사이에 끼어들면 비문이 되는 제약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 (6) Los tejados de pizarra son especialmente adecuados para los climas lluviosos. Los de adobe, **en cambio**, resultan más oportunos para los cálidos.
- (7) *Los tejados de pizarra son especialmente adecuados para los climas lluviosos. Los de adobe resultan más, **en cambio**, oportunos para los cálidos.

(Martín Zorraquino & Portolés 1999, 4063)

문장 내에서 문두, 문중, 문미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스페인어 담화표지의 특징인 점을 고려하여 V장에서 ‘entonces’의 문장 내 출현 위치를 분석할 것이다. 이에 앞서, 이러한 특성이 한국어 담화표지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하여 다음 장의 논의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스페인어 담화표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 ‘pues’와 유사한 기능적 측면이 있는 한국어의

‘뭐’, 화제를 전환하는 기능이 있는 ‘근데’의 문장 내 출현 환경을 다음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

- (8) 뭐... 저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지?
- (9) 내가 뭐,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알어?
- (10)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유 나(2016, 47)

위의 예시를 통해, 한국어에서도 스페인어와 마찬가지로 담화표지 ‘뭐’가 문두, 문중, 문미에 모두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들 담화표지는 또한 문장 내에서 어느 위치에 출현하든, 앞뒤에 어떤 성분이 나오든 어형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유 나 2016, 48).

다음의 한국어 담화표지 ‘근데’와 ‘참’의 예시를 살펴보자.

1) 문두(clause-initially)에서의 출현

- (11) A. 페이퍼를 빨리 못 낼 거 같아요. 근데, 페이퍼를 빨리 못 내면은 한국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 B. 그렇긴 하다 그지, 어.

(Sohn & Kim 2014, 222)⁸⁾

- (12) 참, 내가 지갑을 놓고 왔다.

(구종남 2015, 402)

2) 문중(clause-internally)에서의 출현

- (13) 희영이가 방학 때 미국, 참, 호주에 간대.

(구종남 2015, 422)

3) 문미(clause-finally)에서의 출현

- (14) 문제가 심각해, 근데.

(Sohn & Kim, 2014, 232)

8) 본고에서 인용한 Sohn & Kim(2014)에서의 예문은 실제 전화 통화에 등장하는 대화이며, 이를 전사하는(transcribe) 작업을 통해 알파벳(Korean Romanization)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그와 더불어 각 문장에 대한 영어 해석을 바탕으로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14)의 경우에는 문장 끝에 ‘근데’가 출현하여, 문장종결어미(sentence final marker)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Sohn & Kim(2014, 232)에서는 ‘근데’가 문장종결어미로서 역할을 하며, 문장의 끝에서 주로 나타나는 경계억양(boundary tone) 패턴이 나타나면서 문법화(grammaticalization)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이때 ‘근데’는 담화표지로 분류하되, 문장종결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V장에서 ‘entonces’의 문장 내 위치에 따른 기능과 역할을 다룰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한 문장 내에서 동일한 담화표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15) 근데, 뭐, 생활은 어떠냐, 근데, 참

(Sohn & Kim 2014, 235)

(16) 우리 경제가 참 지금은 어렵지만 참 그래도 조만간에 참 나아질 거예요.

(구종남 2015, 421)

일부 연구에서는 담화표지가 문장의 시작에 위치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Schiffrin, 1987; Brinton, 1996; Fraser, 1999 등), Hansen(1998: 237)에서는 담화표지가 ‘문장 내(clause-internally)’ 혹은 ‘문장 끝(clause-finally)’에도 위치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요소라고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스페인어 및 한국어의 문어·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용례를 찾아보았을 때, 담화표지가 문두에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문미에 위치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예시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엄연히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담화표지 ‘entonces’의 위치에 따른 기능의 차이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V. 담화표지 ‘entonces’의 문장 내 위치에 따른 기능

1.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담화표지 ‘entonces’의 위치와 기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공개되어 있는 코퍼스를 활용하였다.

- 1) CREA (Corpus de Referencia del Español Actual)
RAE (Real Academia Española) 주관
- 2) CDE (Corpus del Español)
Mark Davies (Brigham Young University) 주관
- 3) CSCM (Corpus Sociolingüístico de la Ciudad de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주관
- 4) Google
- 5) 그 외 논문 자료

위 코퍼스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구축하고 있어, 검색되는 모든 ‘entonces’의 예시를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고려하여 검색된 예시를 일차적으로 검토하되, 주어진 문맥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만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entonces’가 문두, 문중, 문미에 나타나는 경우를 모두 보여주기 위하여, 문장 내 위치를 이차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후에 선별한 자료에 나타난 ‘entonces’의 의미적 차원에서의 기능(semantic function)을 분석하였다.

2. 담화표지의 관계성 분류

‘Entonces’의 의미적 기능을 분석하기에 앞서, 개별 담화표지의 기능 혹은 관계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이들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담화 혹은 문장 내에서의 담화표지가 나타내는 화용적 관계 및 의미적 기능을 분류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Romera(2001, 66-69)에서는 담화표지가 나타내는 관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 1) 의미적 관계, 즉 관용적(ideational) 관계
- 2) 화용적 관계, 즉 상호작용적(interactional) 관계
- 3) 텍스트적 관계, 즉 순차적(sequential) 관계

본 연구는 위의 세 가지 대분류를 바탕으로 개별 담화표지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관계적 의미와 기능을 분류해 보았다. <표 3>은 담화표지의 관계성 분류

를 보여주는데, 이는 Romera(2001, 68)에서 정리한 담화표지의 관계 분류표(taxonomy of relations)를 재구성한 것이다. <표 3>은 특정 기호나 표식을 통해 표의 내용 및 출처를 구분하였다. 먼저, <표 3>에서 * 표시가 있는 경우는 Romera(2001)에서 선행연구에 대해 추가한 항목이다. 기울임체로 표시된 기능은 본고에서 추가한 기능이며, 자주 사용되는 기능의 경우,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였다. 또한 Romera(2001, 67)에서 설명한 관계적 개념 중에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도 본고에서는 포함시켰다. Romera(2001, 163)에서 정리된 66가지의 의미적 관계(taxonomy of relations) 중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10개의 기능을 다음과 같다:

consequence(결과), cause(원인), explanation(설명), elaboration(상세),
contrast(대조), objection(대조), continuation(계속), adversative(역접),
temporal(시제 부사), additional(부연)

300
301

〈표 3〉 담화표지의 관계성 분류

SEMANTIC	PRAGMATIC	TEXTUAL
Elaboration	Interpretation	<i>Logical relation</i>
Elab-Generality	Evaluation	*Commentary
General-Specific	Conclusion	*Paraphrase
Abstract-Instance ⁹⁾	Enablement	*Aside
Identification	Background	*Digression
Restatement	Antithesis	*Interruption
Correction	Exhortation	Pre-Sequence/
Summary	Support	*Expressive sequence:
Circumstance	Solutionhood	(ritualistic act for civility)
Location	Answer	Joint/Continuation
Time (<i>temporal</i>)	Evidence	Topic Shift/ <i>Turn transition</i>
Means	Proof	<i>Restart</i>
Manner	Justification	
Instrument	Motivation/Explanation	
Parallel-Event	Concession/*Contrary to	
Sequence	expectation	
Cause (Result) /	*Interactional	
Consequence	Initiations:	
Purpose	informatives	

9) Romera(2001, 68)에서는 Abstract-Instance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원문 오류라고 판단하여 Abstract-Instance라고 수정하였다.

General-Condition	reports	
Condition	assessments	
Exception	expressives	
Comparative	confirmation	
Equative	commitment	
Otherwise	repetition	
Comparison	clarification	
Analogy	directives	
*Disjunction	command	
*Adversative	advice	
*Contrast	Responses:	
*List (Addition, <i>additional</i>)	request for confirmation	
<i>Opposition</i>	request for information	
	request for clarification	
	request for repetition	
	request (offer, proposal, invitation)	
	agreement/endorsement	
	disagreement/objection	
	doubt	

<표 3>을 살펴보면, 담화표지의 역할 중에서도 전개하기, 인과관계 설명하기, 결과 보여주기, 이후 내용 설명하기, 계속해서 이어가기 등의 기능이 두드러지며, 문두에 나타나는 담화표지는 화제 전환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절에서는 ‘entonces’가 담화 및 문장에 나타난 예시를 살펴보고, <표 3 - 담화표지의 관계성 분류>를 바탕으로 각각의 ‘entonces’가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자료 분석

‘Entonces’는 원래 시제 부사에 그 기원이 있으며, 이후에 접속사(connector)로 기능이 발전되었다(Romera 2001, 213). 시제 부사적 기능을 하는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

(17) María estaba trabajando en su casa y **entonces** se acordó de que debía llamar a Luis.

(18) María entró en el apartamento y **entonces** llamó Luis.

(Romera 2001, 213)

위 예문 (17)에서 접속사 ‘y’를 기준으로 앞의 내용과 ‘entonces’로 이어지는 뒤의 내용의 시점은 과거로 동일하다. 반면, 예문 (18)에서는 ‘entonces’를 통해 사건의 선후 관계가 명확해져, 접속사 ‘y’를 기준으로 ‘entonces’로 이어지는 뒤의 사건이 시간적으로 이후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위 예문은 ‘entonces’의 담화표지적 기능 보다, 시제 부사적인 기능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아래 예문은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 나타난 ‘entonces’의 사용 양상을 보여준다.

(19) 문두: ¿**Entonces**, cómo está eso?

(20) 문중: A. Algo no funciona.

B. Vamos **entonces** a cambiarlo, porque si no, ira cada vez peor.

(21) 문미: ¿Cómo está eso, **entonces**?

위의 (19)-(21)의 예시는 실제 원어민 화자들 간의 대화에서 발췌된 내용이다. (19)의 경우에는 화제를 전환하는 기능의 ‘entonces’로, 한국어로는 ‘그럼, 이젠 어때?’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20)에서는 ‘entonces’가 문중에 나타나며, 한국어로는 ‘우리 그럼 그걸 교체하자. 아니면 더 나빠질거야.’ 정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화용적 ‘확인(confirmation)’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문미에서 나타난 ‘entonces’는 코퍼스에 출현하는 빈도가 낮으며, (21)에서는 ‘어떻게 지내, 그럼/근데?’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후에 다룰 문미에서의 ‘entonces’가 문장을 종결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 앞 (14) 예문처럼 한국어의 문미에 나타나는 ‘근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을 볼 수 있다.

1) 문두 ‘entonces’의 기능

문두에 나타나는 ‘entonces’의 예시는 코퍼스 상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다. 문두에 나타나는 ‘entonces’에는 ‘bueno’, ‘pues’와 더불어 화제를 전환(topic shift)하거나 담화와 담화를 연결하는 연결사적 기능(connective function)이 있다. 주로 대화를 시작하거나, 대화의 주제를 바꾸거나, 대화의 차례를 바꾸거

나(turn shift), 대화의 주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거나(continuity of the topic), 결론을 내리거나, 상대의 요청을 수락(acceptation)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표 4>에 제시된 문장 내에서의 'entonces'의 기능은 하나 이상일 수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판단된 것으로 선택하였다. 'entonces'가 1회 이상 등장할 경우, 밑줄과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경우에 대하여 그 기능을 명시하였다. 예문 내의 철자나 띄어쓰기 등의 오류는 원문을 따랐으며 수정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문두에 나타나는 'entonces'의 예시는 총 10개를 선택하였으며, 그 '기능'은 각 예문의 문맥과 <표 3>을 바탕으로 부여한 것으로 다른 기능이 추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판단하였다.

<표 4> 문두에 나타난 'entonces'의 기능

No.	예시 (Example)	기능 (Function)	출처 (Source)
1	Un día vino a verme con un grupo de surrealistas. Entonces empezamos a hablar. Seguimos viéndonos y nos hicimos muy amigos.	Semantic Consequence	CDE ¹⁰⁾
2	A - Créeme que no me importa su edad. B - Entonces , tú sabrás lo que haces.	Semantic Consequence	Butragueño (2003)
3	y el camión iba a dar vuelta. Entonces <~entóns> yo saqué la punta del coche, y al dar la vuelta la dio muy cerrada él.	Semantic Consequence	CSCM ¹¹⁾ , Entrevista 1
4	que le estaba dibujando los planos de Santa Fe. Y entonces, el chavo trabajaba aparte en un despacho. Entonces era mucho tiempo.	Semantic Consequence	CSCM, Entrevista 1
5	1 Está muy arregladito y muy curioso, sí. 2 Sí, sí, sí. 3 No, si le digo la verdad que tiene luz, que tiene luz, 4 entonces aunque aquí no haya ventanas está bien...	Semantic Consequence or Pragmatic Pre-conclusion	Romera (2001)
6	pero también extrañaba a mi familia. Entonces fui como casi cada semana para la casa en Miami	Semantic Consequence (Result)	Radice (2012)

10) Corpus de Español의 약어 CDE를 사용하기로 한다.

11) Corpus Sociolingüístico de la Ciudad de México의 약어 CSCM을 사용하기로 한다.

〈표 4〉 계 속

No.	예시 (Example)	기능 (Function)	출처 (Source)
7	72 “...yo tenía un examen [...] para la cinta negra de Tai Kwan Do 73 era [...] [jaja] 74 [-] entonces era un día muy importante 75 un día que tenía concentrarme...”	Semantic Consequence (Result)	Radice (2012)
8	35 “... al fin del día cuando nos fuimos de la isla me había fijado que no podía encontrar mi teléfono 36 entonces empezamos a buscar por todo el lado, por la tierra, las rocas...”	Semantic Consequence (Progression)	Radice (2012)
9	entonces ya sabes todo el mundo vamos a Tepito a ver qué (MZ, CD 1-4-01:43)	Pragmatic Conclusion	Butragueño (2003)
10	292 E: ¿El tuyo cuál será?/ el/ ne- 293 I: Se supone que el mío es el de abajo 294 E: A ver espérame/ aquí abajo/ <aquí debe de decir> 295 I: A ver si vas a <...> con tanto cable 296 E: Este es el/ izquierdo. Úchale, es el tuyo, ah, el tuyo está bien 297 I: ¿Sí? 298 E: Sí 299 I: O sea que, ¿no hay bronca? 300 E: No. 301 I: Ah, entonces, ¿el que es tuyo no no se escucha? 302 E: ¿Mm? 303 I: ¿El que no se escucha es el tuyo? 304 E: Un poquito/pero no/está bien el volumen.	Pragmatic Request of clarification	CSCM, Entrevista 1

<표 4>의 예시들을 살펴볼 때, 주로 문두에서의 ‘entonces’는 대부분의 경우에 의미적 차원에서의 결과(Semantic Consequence)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며, <표 4>의 예시 10을 통해 ‘화용적 차원에서의 확인 요청’의 기능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2) 문중 ‘entonces’의 기능

문중에 나타난 ‘entonces’의 경우를 살펴보자. 구절(phrase)의 개념을 문장으로 볼 경우, ‘entonces’의 위치가 문두인지, 문중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을 수 있어, 코퍼스 원문 상에서 문장 내에 위치하였더라도, 어떻게 음성적으로 발화

〈표 5〉 문중에 나타난 'entonces'의 기능

No.	예시 (Example)	기능 (Function)	출처 (Source)
1	Si ellos están aquí, entonces , ¿quién está en casa?	Semantic Consequence	Google
2	Algo no funciona. Vamos entonces a cambiarlo, porque si no, irá cada vez peor.	Semantic Consequence	CDE
3	No puede variarla porque entonces se moriría.	Semantic Consequence	CDE
4	Porque una cosa - - - incluso conflictual que tenga que ser puramente conceptual, tiene que ser entonces , en alto nivel especulativo y no puede ser ensayístico.	Semantic Consequence	CDE
5	Las comunidades entonces adquieren ese televisor, se consiguen el salón, bien sea el salón de la junta comunal, el salón parroquial, el salón de un colegio o de una escuela, [...]. ¹²⁾	Semantic Consequence	CDE
6	-Bogotá, Ibagué- han se... han sido seleccionados entre aquellos que tienen que cumplir sus horas de alfabetización de acuerdo al decreto del ministerio. Estos guías entonces van, organizan el Telecentro, muchas veces tienen ellos mismos que conseguir los salones y demás.	Semantic Consequence	CDE

하는가에 따라 문두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본고에서는 <표 5>의 예시에서의 'entonces'의 기능을 모두 의미적 차원에서의 '결과'로 분석하였다. <표 4>와 <표 5>를 종합해 볼 때, 문두와 문중에 등장하는 'entonces'의 기능은 의미적 차원에서의 '결과'가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 문두와 문중에 나타나는 'entonces' 의미적 기능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12) <표 5>의 5번과 6번, <표 6>의 3번 예문은

http://liceu.uab.cat/~joaquin/language_resources/lang_res/Norma_Culta_Bogota.txt
사이트에서도 검색이 되는 예문임.

3) 문미 ‘entonces’의 기능

<표 6>에 제시된 예시는 모두 구어 자료로, 문어 자료에서는 문미에 ‘entonces’가 잘 출현하지 않았다. 문미에 등장하는 ‘entonces’의 경우, 화제 전환 기능을 담당하는 담화표지라기 보다 오히려 문장의 끝에 나타나는 문장종결표지와 같은 기능을 하면서 화자의 확신을 표시한다. 이는 한국어 ‘근데’가 문미에 나타난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두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동일하지 않지만, 문장 내에서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평서문에서는 문장종결표지로서 화자의 결정과 확신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표 6 – 문미에 나타난 ‘entonces’의 기능〉

No.	예시 (Example)	기능 (Function)	출처 (Source)
1	Inf. ¹³⁾ - Y anda muy bien con mi hija, ¿no? Anda muy bien, por lo menos... y --- voy a ser abuelo en mayo. Enc. ¹⁴⁾ - ¡Ah, sí? Ah, felicitaciones. Entonces --- lo voy a felicitar. ¿En mayo? Lo voy a felicitar entonces .	Semantic Consequence	CDE
2	Inf. - ¿Quieres un saquito? Enc. No. Estoy asada. Inf. - Bueno, ¿y ahora qué más? Ya se me acabó la cuerda para hablarte de todas mis cosas. Enc. - Y ustedes prácticamente le están haciendo la cope... competencia al Muro filanco, entonces .	Speaker's confidence	CDE
3	Enc. - ¿Crees que existe, porque podría existir, otra alternativa más real? Inf. - Lo que creo es que la alternativa no se plantea así. La... la alternativa histórica de un país no se plantea, o no... no sé, no sé en otros, por lo menos; pero en Colombia, en este momento no se plantea entre... entre si saca más votos el general Rojas o... ol... o el turbayismo. La alternativa es muy distinta, y no se resuelve en unas elecciones. Enc. - ¿Pero cuál es el nudo del problema, entonces ?	Request for clarification	CDE

13) Informante: 인터뷰에 참여하는 사람

14) Encuestador: 인터뷰에서 질문하는 사람

4) 시제부사 'entonces'

<표 7>에서의 예시는 모두 시제부사로서의 'entonces'로 담화표지로 보기는 어렵다. 이 경우에도 'entonces'가 문두, 문중, 문미에 모두 나타날 수 있으며, 전치사 desde와 함께 사용되었을 때, 시제부사임이 더욱 확실해 지는 경우가 많았다.

〈표 7〉 시제부사로서의 'entonces'의 문장 내 위치

No.	예시 (Example)	기능 (Function)	출처 (Source)
1	Fue una decisión así muy de casualidad, ¿no?, porque así tenía veinticuatro años, estaba lleno de deudas, estaba un poco cansado de bolichear. Me dije entonces : “O progreso intelectualmente o progreso económicamente”.	Temporal	CDE
2	Cuando yo me enteré, yo estaba en La Plata, yo era director de la revista W., estaba en el Ministerio de Educación entonces .	Temporal	CDE
3	A los pocos meses de estar desarrollando esa actividad, mi papá resolvió que si continuaba por ese camino, el alcoholismo iba a ser tremendo por causa de ese desayuno, y desde entonces me prohibieron ser acólito. No quiere decir que no haya vuelto a misa, pero me quitaron mucho del interés en ese entonces .	Temporal	CDE
4	Eh... también este... otro incidente en mi vida pues... entonces... después de dos divorcios, entonces conocí a mi esposo presente y:: es el último... espero'. (risa)	Temporal	Flores -Ferrán (2014)
5	E: Bueno, me ganabas como por doscientos pesos I: Sí, ganaba bien poquito en ese entonces , bueno, todavía, ¿no? (risa) E: (risa) No, pero en ese entonces era una miseria. I: sí.	Temporal	CSCM, Entrevista 1
6	El problema en Alemania entonces - estamos en mil novecientos sesenta y cinco - era que la medicina práctica no era excesivamente buena.	Temporal	CDE
7	Estudié la danza bolera con el profesor más importante entonces , que era el maestro Miralles.	Temporal	CDE
8	Esto, llegué entonces , el el el jueves, viernes fui a una reunión de un cliente que estaban los abogados listosahí para botarnos. Porque salió todo bien y entonces de ahí me fui a casa, me cambié...	Temporal	Flores -Ferrán (2014)

VI. 맺는 말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자면, 문두에서의 ‘entonces’는 대부분의 경우에 의미적 차원에서 ‘결과’를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화용적 차원에서의 ‘확인 요청’의 기능 또한 수행함을 알 수 있었다. 문중에 등장하는 ‘entonces’ 역시 의미적 차원에서의 ‘결과’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문두와 문중에 나타나는 ‘entonces’ 의미 기능적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문미에서의 ‘entonces’가 문장을 종결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 문미에 나타나는 한국어 ‘근데’와 유사한 기능을 함을 볼 수 있었다. Sohn & Kim(2014, 245)에서는 한국어 ‘근데’가 문미에 위치할 경우 문법화 되어, 문장을 끝맺는 접사(final particle)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해석하였는데, 본 연구 또한 문미에 나타나는 ‘entonces’의 경우 문장종결의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담화표지의 기능 중에, ‘문장종결표지’로서의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며, 이때 담화표지의 기능은 문장 내 위치에 따라서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보다 많은 문어 및 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원래의 기능을 보다 세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entonces’ 외에 출현 빈도가 높은 담화표지의 기능이 문장 위치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해 볼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구종남(2015), 「‘참’의 감탄사와 담화표지 의미 기능」, 한민족어문학, Vol. 69, pp. 399-428.
- 김해연 외(2016), 『담화분석』, 종합출판 ENG.
- 신자영 외(2013), 『초급스페인어 1』,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심영식(2009), 「스페인어 원어수업에서의 담화 표지 연구」, 이베로아메리카 연구, Vol. 20, No. 1, pp. 261-283.
- _____(2012), 「스페인어 교재에서의 담화 표지어 분석과 효과적인 교수 방안 연구」,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23, No. 3, pp. 165-190.
- 유 나(2016),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구어 담화표지 교육 연구」, 박

- 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유은정(2013), 「스페인어 담화 관련 문법 요소의 교육」,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24, No. 3, pp. 105-125.
- 이기갑(2006), 「한국어의 양태(modality) 표현」,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67-83.
- 이성하(2014), 「영어와 한국어의 담화전략적 의사의문구문으로부터 학용표지의 문법화」, 언어과학회 동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 경북대학교 (2014.2.20.).
- 전영옥(2017), 「한국어 담화표지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말연구, Vol. 45, pp. 127-160.
- 조혜진(2018), 「『Historias del Kronen』을 통해 살펴본 응결 요소 Pues의 기능 분석」,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1, No. 2, pp. 171-193.
- Brinton, J. Laurel(1996), *Pragmatic Markers in English: Grammaticalization and Discourse Functions*,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 Dabkowski, Meghan Frances(2018), “Variable Vowel Reduction in Mexico City Spanish”,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Flores-Ferrán, Nydia(2014), “*So pues entonces*: An examination of bilingual discourse markers in Spanish oral narratives of personal experience of New York City-born Puerto Ricans,” *Sociolinguistic Studies*, Vol. 8, No. 1, pp. 57-83.
- Fraser, Bruce(1999), “What are discourse markers?,” *Journal of Pragmatics*, Vol. 37, pp. 931-952.
- Fuentes Rodríguez, C., María Elena Placencia & María Palma-Fahey(2016), “Regional pragmatic variation in the use of the discourse marker *pues* in informal talk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Quito (Ecuador), Santiago (Chile) and Seville (Spain)”, *Journal of Pragmatics*, Vol. 97, pp. 74-92.
- Hansen, M-B.(1998), “The semantic status of discourse markers,” *Lingua*, Vol. 104, Issues 3-4, pp. 235-260.
- Martín Butragueño, Pedro(2003), “Hacia una descripción prosódica de los marcadores discursivos. Datos del español de México,” en E. Herrera

- Zendejas & P. Martín Butragueño(eds.), *La tonía. Dimensiones fonéticas y fonológica*,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pp. 375-402.
- Martín Zorraquino, M. Antonia & Estrella Montolío(eds.)(1998), *Los marcadores del discurso*, Madrid: Arco-Libros.
- Martín Zorraquino, & José Portolés Lázaro(1999), “Los marcadores del discurso,” en Bosque, I. y Demonte, V. dir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Tomo III*, Madrid: Espasa-Calpe, cap. 63, pp. 4051-4213.
- Portolés, José(1998), *Marcadores del discurso*, Barcelona: Editorial Ariel.
- Radice, Joseph F.(2012), “Spanish language discourse markers in the narrative genre,” Thesis, University of Florida.
- Romera, Magdalena(2001), “Discourse Functional Units: A Re-Examination of Discourse Marker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Spanish”,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Schiffrin, D.(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owstack, Rachel E.(2015), “Institutional representations of ‘Spanish’ and ‘Spanglish’: managing competing discourses in heritage language instruction,” *Language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Vol. 15, No. 3, pp. 341-361.
- Sohn, Sung-Ock & Stephanie Hyeri Kim(2014), “The Interplay of Discourse and Prosody at the Left and Right Periphery in Korean: An Analysis of Kuntay ‘but’,” In K. Beeching and U. Detges (Eds.), *Discourse Functions at the Left and Right Periphery: Crosslinguistic Investigations of Language Use and Language Change*, Brill.

〈인터넷 사이트 자료〉

- Corpus de Español, <http://www.corpusdelespanol.org>
- Joaquim Llisterri, 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 http://liceu.uab.cat/~joaquim/language_resources/lang_res/Norma_Culta_Bogota.txt
- Martín Butragueño, Pedro & Yolanda Lastra(coords.) (2011-2015), *Corpus sociolingüístico de la Ciudad de México (CSCM)*,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https://lef.colmex.mx/corpus_sociolinguistico.html

Real Academia Española, <https://www.rae.es/>

Real Academia Española - Corpus de Referencia del Español Actual (CREA),

<http://corpus.rae.es/creanet.html>

손 지 은

서울대학교

sonjyeun@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9년 11월 17일

심사완료일: 2019년 12월 9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3일

Function of discourse marker ‘entonces’ in Spanish depending on the sentence position

Son, JyEun

Seoul National University

Son, JyEun(2019), “Function of discourse marker ‘entonces’ in Spanish depending on the sentence position”,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0(3), 287-313.

Abstract Traditionally, discourse markers (DMs hereafter) were treated like ‘expletives’, ‘pause-fillers’ which do not contribute to the syntax of language. Well-known DMs to Korean learners of Spanish are ‘pues’, ‘bueno’, ‘entonces’ that appear in the sentence initial position functioning as a signal of the beginning of the conversation, topic shift, or as a link to the preceding discourse. Among many previous studies on the Spanish DMs, I analyzed the position of DMs in a sentence and its semantic function based on Martin Zorraquino & Portoles (1999), Romera (2001), Sim, Young-sik (2012) and so on. Also, I elaborated the argument based on the comparison of Spanish DMs and Korean DMs. In chapter II, the terms and definitions associated with DMs are listed, and Chapter III examines the classification of DMs according to its function. In chapter IV, I analyzed the diverse location of DMs in a sentence. In chapter V, Spanish ‘entonces’ was analyzed which appears in both written and spoken languages, and in formal and informal languages. ‘Entonces’ in the sentence initial and medial position has a function of semantic consequence, however, in sentence final position, it functioned as a sentence ender particle. Based on the result, I suggested to add a new function of DMs which can be named as ‘sentence final marker’.

Key words discourse markers, function of discourse markers, position of discourse markers in a sentence, Spanish ‘entonces’, sentence final marker